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다

나눔은 기쁨, 함께하는 행복! 우리 단체의 따뜻한 발걸음

2월21일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정애)를 통해 이웃돕기 성금(월120만원)을 기탁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지만 새식구(다섯가정)에 희망을 전달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적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EWS
우리동소식

행사앨범

소망의샘터, 이웃돕기 성금(월 120만원) 기탁 기막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소망의샘터(대표회장 최희종)는 21일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정애)를 방문하여 이웃돕기 성금(월120만원)을 기탁했다. 소망의샘터는 매년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활동을 이어 오고 있으며,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 가정의 장기 후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나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나 자신을 위한 행복이기도 합니다.
나눔은 순간 우리는 더 풍요로워지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나눔이 있는 곳엔 희망이 피어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결국 "나눔"이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하고 따뜻한 힘입니다.

후 / 원 / 계 / 좌

* 국민 | 656501-01-250453

농협 | 387-01-011911

예금주 | 소망의샘터

새가족 소식

우리의 작은 도움!
어르신들의 마음에 온기로 닿길 바래봅니다.



Daum 또는 NAVER, ZUM 등에서
소망의샘터.kr을 검색하세요.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샘터사람들



공익법인 소망의샘터
2025 봄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소망의센터가 되겠습니다.

매 순간 작은 실천으로 귀한 가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은 계엄령이 선포되며 역사적인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경제는 더욱 위축되었고,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폐업하는 상황이고, 소비 심리는 급격히 얼어붙고,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살아가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봄이 시작되자마자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며 나라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이 자주 발생하면서 산림이 건조해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길로 번진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불안정, 환경 재앙까지 겹친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복지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자원봉사와 기부도 줄어들고 있으며, 하루 한 끼 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더욱더 소외되고, 생활이 더욱더 막막해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도 터전을 잃고 극심한 혼란과 불편함 속에 하루하루가 힘겨우리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든 지금 이 시간

이럴 때 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더 따뜻한 손길이 닿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섯 가구를 더 돌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손길이라 해도 누군가엔 소중한 빛이 된다고 믿기에...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소망의센터가 되겠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후원자님을 찾습니다.(초청생략)

2024-12-17	50,000	행복하세요	2025-01-13	50,000	김종훈
2024-12-22	10,000	의정부,감사	2025-01-24	50,000	행복하세요
2024-12-23	20,000	소망의센터	2025-01-31	10,000	김재효
2024-12-24	10,000	김도희	2025-02-07	100,000	김영숙
2024-12-24	20,000	김민아	2025-02-12	50,000	김종훈
2024-12-31	120,000	오승원	2025-02-28	10,000	김재효
2024-12-31	100,000	스마트월	2025-03-12	50,000	김종훈

사랑을 굽다 따뜻함을 나누다

달콤한 향과 함께 퍼지는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들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시길~



보름밥과 나물 그리고 갈비탕, 정성의 맛으로 전한 우리의 마음

대보름날 오곡밥과
대보름나물, 갈비탕과 부럼을 준비해 찾아 뵈었습니다.



손길이 닿을 때 명절은 따뜻해집니다.

함께해서 따뜻한 명절,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